

시험감독관(Proctor) 제도 안내

안녕하십니까? 시험감독관 여러분. 갈보리침례신학교의 신학생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감독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험감독관 제도는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는 최근의 추세에 따라 국내외 많은 신학교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신학생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 위치상 의인(Positionally righteous)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에 사로잡히고 유혹받기 쉬운 죄인들임을 잘 아는 신학교들에서는 시험감독관 제도를 통해 신학생들이 시험과 관련하여 죄의 유혹에 빠질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1. 학생은 강의개시일 이후 4주 안에 (2023년 3월 내에) 모든 신학생들은 담임목사님 혹은 집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시험감독관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시험감독관이 어느 분이신지, 성함과 이메일을 해당 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냅니다.
(예 : 저는 신학생 디모데입니다. 교회의 스테반 집사님께서 저의 시험감독관이 되어주기로 하셨습니다.)

3. 신학생은 1)어느 날 2)몇 시에 3)어디에서 시험감독관을 만나 중간/기말고사를 치르기로 약속을 했는지, 해당 교수님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저는 5월 1일 주일 저녁 8시에 교회에서 만나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4. 시험감독관은 신학생이 시험을 보는 동안 같은 공간에 있으셔야 하며, 반드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않아도 됩니다. (책을 보시거나 필요한 일들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학생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죄의 유혹(کنینگ,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시험감독관은 신학생의 답안지 아래쪽 빈 공간에
1) 서명해주시고 (예 : 감독관 스테반 서명)
2) 신학생과 함께 사진을 찍으시고
3) 서명된 답안지도 사진을 찍으셔서
해당 교수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된 답안지는 특히 밝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게 잘 찍으셔서, 신학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으로 찍은 답안지를 보고 해당 교수는 채점을 하게 됩니다.

신학생을 위해 이러한 수고를 기꺼이 해주시는 시험감독관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명의 신학생이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돕는 이 일을 위한 수고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갈보리침례신학교 학장
구정민 드림